

# 전남 종합병원 3곳 중 1곳 '부실한 중환자실'

### 심평원 적정성 평가 결과...광주·전남 28곳 중 1~2 등급 5곳뿐 전문장비·시설 없고 전문의료인력 태부족 지역환자 '의료사각'

전남지역 종합병원 세 곳 중 한 곳은 중환자실 전문장비나 전문 의료인력 등이 없는 '부실 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감 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의료 현장의 필수분야인 종합병원 중환자실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2023년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대한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 총 종합병원 28곳(광주 10곳, 전남 18곳) 중 1~2등급을 받은 종합병원은 17.8%(5곳)에 그쳐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심평원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병원 303곳(상급종합병원 45곳, 종합병원 258곳)에 대

해 중환자실에서 적절한 인력, 시설을 구비하고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항목은 중환자실 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 여부, 감염관리 활동 여부, 전담전문의·간호사 1인당 병상 수, 중환자실 사망률 등이다.

결과는 점수로 환산해 1등급은 종합 점수 90점 이상, 2등급은 70~90점, 3등급은 50~70점, 4등급은 30~50점, 5등급은 30점미만 등 5개등급으로 나뉜다.

평가 결과 광주는 1등급 2곳, 2등급 2곳, 3등급 5곳, 4등급 1곳이었다. 전남은 1등급 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었고, 2등급은 1곳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3등급 10곳, 4등급 5곳, 5등급 2곳으로 대부분의 병원이 열악한 상황이었다.

각 권역별 1~2등급 병원 비율은 서울 74.5%, 경기 52.4%, 경상 36.3%, 충청 36.1%, 강원 33.3%, 제주 33.3% 등이었다.

특히 전남의 경우 총 18개 종합병원 중 4~5등급 병원이 38.8%(7곳)를 차지했다. 병원 세 곳 중 한 곳은 부실한 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꼴이다.

낮은 평가 점수를 받은 병원들의 평가 결과는 지역 병원 중환자실의 열악한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5등급을 받은 고흥종합병원은 아예 중환자 진료를 위한 전문장비를 하나도 들여놓지 않았고, 중환자실 감염관리 활동조차 하지 않은데다 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병상을 3.49개씩 맡는 등(동일 규모 병원 평균 1.00개) 업무 과부하까지 발생하고 있었다.

같은 5등급을 받은 해남종합병원 또한 중환자 진료를 위한 전문장비와 시설 6종 중 1개밖에 구비하지 않고 있으며, 중환자실 감염관리 활동을 하지 않는 점 등에서 나쁜 평가를 받았다.

광주·전남 종합병원 중 중환자 진료를 위한 전문 장비와 시설 6종을 모두 구비한 병원은 5곳 뿐이었다. 광주는 평균 4.1개를 구비하고 있었으며, 전남은 평균 2.6개만 구비하는 데 그쳤다.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가 배치된 경우도 손에 꼽았다.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는 중환자실에 임명·발령을 받은 상급 전문의로 중환자실 환자 관리와 입·퇴실 등을 담당하는 전문의를 가리킨다.

광주에서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를 배치한 곳은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광주기독병원, 서광병원, 광주보훈병원 등 5곳 뿐이었다.

이 중 광주보훈병원은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1명이 담당하는 병상 수가 52개에 달해 동일 규모 평균인 22.7개의 두 배를 넘는 등 업무 과부하가 심각한 상태였다.

전남에서는 화순전남대병원 1곳만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를 두고 있으며, 이곳 전문의의 1인당 담당 병상 수도 32개(동일규모 평균 20.3개)에 달했다.

이밖의 22개 병원(78.5%)에는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의료계에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광주·전남의 중환자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환자실이 낙후되면 지역민들이 큰 상해나 병이 생겼을 때 가까운 곳에서 제 때 치료를 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수도권 중심의 의료 체계가 공고해지면서 지역에서는 중환자실 등 의료 인프라가 낙후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운창 전남도의사회장은 "지역 의료가 낙후되기만을 반복하는 것을 막으려면 수도권 병상을 늘리는 것을 억제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역 의료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며 "예컨대 지역 의료 수가를 신선헌 지역별로 수가 차등을 주는 식으로 지역에 남아있는 의료진에게 유인책을 줘야 투자가 늘고 의료 인프라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골프장인 줄...녹조 뒤덮인 풍암호수공원

광주·전남 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지난 31일 광주시 서구 풍암호수공원에 고수온으로 인해 발생한 녹조로 호수가 초록빛을 띠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 의대 졸업생 절반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

광주 지역의 의대를 나온 졸업생 중 절반은 광주를 떠나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비례)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2022년 광주 지역 의대 졸업생 763명 중 광주 지역에 취업한 경우는 50.6%(386명)에 그쳤다.

광주 지역 의대 졸업생 중 194명(25.4%)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147명(19.3%)은 서울 지역에서 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83명(24.0%)은 광주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졸업생이 수도권에서 취업하는 비율은 2018년에는 6.6%(전체 졸업생 91명 중 6명)에 불과했으나, 지난 2022년에는 37.9%(235명 중

89명)로 급증했다.

전국적으로도 상황은 비슷했다. 최근 5년간 전국 의대 졸업생 9807명 중 58.4%(5730명)가 수도권에 취업했으며, 이 중 46.4%(4550명)는 서울 소재 병원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의대 졸업생의 수도권 병원 취업률도 2018년 55%(1319명 중 725명)에서 2022년 60.7%(2633명 중 1599명)로 증가세를 보였다.

백승아 의원은 "지역 의대에 정원을 배치한 것은 지역 의료 기반 확충하기 위한 것인데 의료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기존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 의대 설립, 지역 의대 출신 의사들의 지역 정주여건 마련 등 지역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시급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월출산 탐방로 정비 공사 일부 구간 출입 통제

월출산국립공원 탐방로 일부구간이 정비 공사로 인해 출입이 통제된다.

국립공원공단 월출산국립공원 사무소는 "훼손 탐방로 정비 공사 시행에 따라 2일부터 25일까지

일부 탐방로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탐방로 공사 구간은 대동제부터 마애여래좌상까지 2.6km 구간이다. 해당 구간에는 노면 정비,

보행 매트 설치, 목재간판 설치, 배수로 정비 등의 공사가 진행된다.

강창구 월출산국립공원 탐방시설과장은 "탐방로 출입통제는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탐방객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 광주전남 혈액원으로 변진 티몬·위메프 사태

한혈 기법품 상품권 지급 중단

국내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인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광주·전남 혈액원으로 번졌다.

광주전남혈액원은 "지난 25일부터 광주·전남지역에서 한혈 기법품으로 제공하는 해피머니 상품권의 지급이 중단됐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혈액원이 구입한 33억원 상당의 해피머니 상품권에 대해 중간 플랫폼 역할을 하던 티몬과 위메프가 해피머니 측에 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면서 해피머니가 사용 불가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기존 한혈자 중 한혈 마스크트 '나눔이' 도안이 담긴 해피머니 상품권을 수령한 경우 가까운 한혈

의 집에서 다른 기법품으로 교환을 받을 수 있다.

혈액원은 현재 해피머니 상품권 대신 5000원 상당의 영화·편의점·커피 상품권, 여행용 세트, 손톱깎이 세트, 8000원 상당의 영화패키지 관람권과 편의점 교환권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스크래치 부분이 훼손됐거나 지자체 등에서 한혈 증진을 목적으로 한혈자들을 위해 기부한 일부 해피머니 상품권의 경우 교환은 불가능하다.

혈액원 관계자는 "업체와 계약 정상화 이행에 대해 협의의 중에 있으며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대비해 지난 주 내용증명을 보냈다. 법적조치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갇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